

단군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환인의 아들 환웅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서로 도우며 사는 마음을 알려 주었어요.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웅은 마늘을 주며 말했어요.

“이 마늘을 먹고
참고 기다리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곰은 마늘을 먹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루하루, 꼭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나는 숲으로 돌아갈래.”

호랑이는 자기 길을 선택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곰은 사람이 되었어요.

환웅과 곰 여자는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단군이에요.

단군은 자라서

사람들을 잘 이끄는 왕이 되었고,

그 나라를 고조선이라 불렀어요.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찾아와요.